

기어코... 전략공천으로 가나

광주 국회의원 5명 윤장현 후보 지지 선언 배경과 전망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광주 국회의원 5명은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을 지지한 배경으로 통합의 광주정신에 가장 부합한 인물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광주에서부터 새 정치의 바람을 일으켜 궁극적으로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새 인물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중앙당의 전략공천 여부와 맞물려 상당한 논란과 후폭풍을 몰아올 전망이다. 당장, 강운태 시장과 이용섭 의원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당내 외의 비판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윤장현 전 위원장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에서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낙하산 전략공천'이 이뤄질 경우 광주 민심이 받아들일 것인지는 미지수다.

◇ 지지 배경 = 이번 광주 국회의원들의 윤 전 위원장 지지 선언은 지난 달 말부터 김동철, 강기정, 장병완 의원 등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지난 달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이후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는 강운태 시장과 이용섭 의원에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윤 전 위원장 지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윤 전 위원장 지지와 함께 강 시장에게는 '명예로운 은퇴'를, 이용섭 의원에게는 '중앙 정치 전념'을 요구하는 주장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공개 지지에 나선 명분은 '윤 전 위원장은 통합 정권에 부합하고 광주정신에 걸맞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에서 시작된 거대한 새 정치의 바람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반드시 지방선거 승리와 정권교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객관적이기 보다는 주관적 측면이 강해, 광주민심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특히 이날 지지 선언과 관련, 광주

“광주정신 부합 후보”

지도부와 사전교감설

당내외 거센 반발

광주민심 이탈 부를수도

국회의원들은 윤 전 위원장에 대한 전략공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만 중앙당 지도부와 교감 없이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이 이뤄졌느냐는 관측이다.

실제로 최근 중앙당의 전략공천설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지지 선언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 전망 = 지지 선언에 따른 후폭풍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강운태 시장과 이용섭 의원은 전략공천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무소속 출마 불사라는 배수진까지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지지 선언을 한 광주 국회의원들에 대해 공정 경선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징계' 요구까지 했다. 박지원 의원은 "공정한 경선을 위해 현역 국회의원들과 지도부 인사들의 지지 선언은 적절치 않다"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여기에 이날 전남을 방문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개혁공천이라는 미명 하에 자기 사람 세우기, 자기편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만 중앙당 지도부와 교감 없이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이 이뤄졌느냐는 관측이다."

이윤석 전남도당 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하면 새 정치도 죽고, 안철수도 죽고, 지방선거도 패배하고 모두 다 죽는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핵심은 광주 민심이다. 지지율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윤 전 위원장을 중앙당에서 전략공천을 한다고 해도 과연 광주민심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것이다. 광주민심의 수렴없이 전략공천을 강행한다면 당 지도부가 '호남은 정치적 뒷밭'이라는 오만한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사)창조포럼은 1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강운태 광주시장을 비롯한 회원, 시민 등 5000여명과 함께 '내가 꿈꾸는 행복광주'를 주제로 대규모 북파티를 열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경선에 참여한 이용섭 국회의원이 13일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시민 일부 국회의원이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을 지지한 데 대해 "구태정치"라며 비판하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시민뜻 외면한 특정후보 지지는 새정치 정신에 역행하는 구정치”

광주시장 예비후보 강운태·이용섭 강력 비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광주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13일 광주시장 경선과 관련해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을 지지하자, 강운태 시장과 이용섭 의원 등 당내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후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용섭 의원 등은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공천위원장인 임내현 의원과 박해자 최고위원 등은 "경선을 진행해야 하는 사람들이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 안 된다"며 당직 사퇴를 요구했다.

또 강 시장은 이 의원과 윤 전 공동위원장에 "중앙당이 경선투를 정하지 못하니 후보들이 직접 만나 우리라도 경선투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 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특정후보를 지지한다고 발표한 것은 새정치의 정신에 정면 역행하는 것이자 구정치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들은 민주성지 광주 시민의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공정한 경선이 차질없이 치러지도록 협력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또 "중앙당에서 호남의 경선투를 정하지 못하고 있으니 후보들이라도 만나 규칙을 정하자"면서 "이 과정에 나온 경선투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이용섭 의원도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뜻을 외면한 특정후보 지지선언은 새정치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광주 시민들은 일부 정치인들이 통합신당의 독점이 견고해 지지 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내세우려고 하는 정치적 야합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이 말하는 개혁공천이 실제로는 민심을 외면한 채, 5대5 지분을 나눠먹기 하려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만약 공천기준의 발표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전략공천을 단행할 경우 정치생명을 걸고 광주시민들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강 시장과 이 의원은 임내현·박해자 의원의 특정후보 지지에 따른 당직 사퇴를 촉구했다. /오영록기자 kroh@kwangju.co.kr

새정치연합 기초단체장 30% 전략공천

사고·혼탁·상징적 지역 중앙당서 공천 방침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과 관련, 사고지역과 혼탁지역, 상징적 지역 등에 대해서는 중앙당에서 공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 가운데 30% 정도를 중앙당에서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앙당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했으며 그 외의 지역은 경선 투에 맞춰 각 시도당에서 경선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에 대한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광주와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과 관련, 몇 곳이 중앙당에서 공천을 주관할 것인지 주목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다.

이와 관련 당내 일각에서는 통합정신을 명분으로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에서 안철수 대표의 의중이 반영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지역 모 기초단체장 후보는 "도대체 어느 당안에 맞춰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경선 일정도 방법도 확정되지 않으면서 후보들만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새누리 광주 이정재, 전남 이종효, 전북 박철곤

여야 지방선거 시·도지사 후보 속속 확정

6·4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공천단체장 후보가 속속 확정되고 있다.

13일 현재 전국 17개 공천단체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는 8곳, 새정치민주연합은 10곳의 후보가 확정됐다.

새누리당에서는 당내 경선을 통해 제주지사(원희룡), 울산시장(김기현), 세종시장(유환식)이 결정됐고, 경쟁후보 사퇴로 경북지사(김관용)와 충북지사(윤진식) 후보가 본선에 진출했다. 또 취약지인 호남에서는 광주시장(이정재), 전남지사(이종효), 전북지사(박철곤) 후보가 최고위 의결 절차를 남겨놓고 있으나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서울시장(박원순), 대구시장(김부겸), 인천시장(송영길), 대전시장(권선택), 울산시장(이성범), 강원지사(최문순), 충남지사(안희정), 충북지사(이시중), 경북지사(오준기), 세종시장(이춘희) 후보가 각각 확정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방선거 여야 중간 대진표

광역시도	새누리	새정치연합
서울	정몽준 김환식 이혜훈(30일)	박원순
부산	서병수 박민식 권철현(22일)	김영춘 이혜성(미정)
대구	서상기 조원진 권영진 이재현(20일)	김부겸
인천	유정복 안상수(23일)	송영길
광주	이정재	강운태 이용섭 윤장현(미정)
대전	박성호 이재선 노병천(18일)	권선택
울산	김기현	이성범
경기	남경필 정병국(25일)	원혜영 김진표 김상곤(미정)
경북	김관용	오준기
경남	홍준표 박완수(14일)	김경수 정영훈(미정)
전북	박철곤	유성열 강봉곤 송하진(미정)
전남	이종효	이낙연 주승모 이석형(미정)
충북	윤진식	이시중
충남	이명수 홍문표 정진석(21일)	안희정
강원	이광준 정창수 최홍집(20일)	최문순
제주	원희룡	김우남 고화병 신구범(미정)
세종	유환식	이춘희

추억의 술

언제나 좋은 벗으로

삼학 양조

삼학

지리산 야생녹차와 청학골 청정수가 빚어낸 신비로운 맛! 추억의 "삼학"이 만듭니다.

지리산 최고봉의 청학골 지하 200m 백반석 암반수

삼학양조(주)

직매장 운영주 및 대리점 모집

“삼학”과 함께할 참신한 사업주를 모집합니다. 상담전화 02)865-3301~2